

칼뱅의 예배 이해

박건택 교수 (홍신대 신대원, 교수)

1. 하나님 예배와 인간 전통

칼뱅의 예배학¹⁾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하신 예배를 되찾는 것이다. 그의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명하신대로 순수하고 합당하게 예배를 받으시는가의 문제와 영적 자유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가의 문제”이다.²⁾ 이점에서 우선적인 걸림돌은 교회법이다. 칼뱅은 “인간 전통” 즉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인간들로부터 나온 모든 법규들”과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므로 칼뱅의 전투의 목적은 이 인간의 법들과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다.³⁾ 칼뱅은 로마 교회의 하나님 예배가 인간들이 만든 법으로 전락되었음을 지적한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을 의무적으로 지키라고 교회에 명할 권리가 없는데도, 그들은 “새로운 교리를 심으려는 대담함,” “비참한 양심들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새 법들을 만드는 오만함,” “요컨대, 그들이 부르는 모든 교회 사법권”을 행사했다.⁴⁾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입법자이심을 인정하는 데에 있다. 여기에는 그의 뜻이 우리의 법이요, 우리가 그의 명령에만 순종한다는 두 가지 이유가 담겨 있다. “첫째는 그의 뜻이 모든 의와 거룩의 완전한 규칙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과, 따라서 선하게 사는 방식(science)은 무엇이 그를 기쁘게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둘째는 그를 선포하고 합당하게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그가 우리 영혼의 유일한 지배자로서 명령권을 가지셨음을 인정하는 것과 우리의 의무란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⁵⁾ 이 두 가지는 인간의 법을 저울질하는 근거가 된다.⁶⁾ 칼뱅은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근거를 사용했다고 말한다. 첫 번째 것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했고(골 2:8), 두 번째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다(갈 5:1-12).

제네바 개혁자는 이 근거를 자신의 시대에 적용하여 로마 교회의 교회법이 바로 인간의 법임을 두 가지로 지적한다. “첫째는 이 교회법들이 대부분 무익하며 때로는 심지어 어리석고 부당한 준수 사항들로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다. 둘째는 법의 양이 너무 많아서 신실한 양심이 그것에 짓눌리며, 또한 일종의 유대교로 돌아가 그림자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수 없다.”⁷⁾ 전자와 관련하여, 칼뱅은 당시 사람들이 교회법을 즐기며, 무슨 선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설령 교회법이 명예와 금욕으로 겸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듯 보이나, 그것은 실로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 화려한 의식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세상의 지혜는 이런 의식 속에 무슨 신비가 있는 것으로 여기나, 위에서 말한 저울을 달아 본 사람들은 이것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잡동사니에 불과하다는 것과”, “사람의 눈을 현혹시켜 오류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악습이요 기만임을 안다.”⁸⁾ 이런 의식의 목적은 사람을 가르치기보다는 마비시키려는데 있다. 후자에 대해서 칼뱅은 이런 인간 전통이 너무도 많이 쌓여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악한 입법자가 한번 영혼들에 대해 세력을 장악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명령과 금지 조치를 만들며, 극도의 상태를 넘어서기까지 한다.”⁹⁾ 그들이 악한 자들을 위해 그림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칼뱅은 “무지한 자들을 돕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폐하신 유대교적인 것을 부활시키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한다.¹⁰⁾ 나아가 많은 의식들이 마술적 주문처럼 되었고 일부 사제들의 돈벌이에서 시작된 것도 있다. 칼뱅은 강한 어조로 말한다. “기원은 어쨌든 간에, 이것이 백성의 돈을 끄집어내는 올가미와 같기 때문

에, 명백한 괴롭힘에서 교회를 정화하길 바란다면, 그리고 비열한 장사가 행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대부분의 의식들을 절단하지 않고는 달리 할 수 없다.”¹¹⁾

칼뱅은 자신의 예배 이론을 단순히 교황파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적용시킨다. “왜냐하면 인간의 고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이 어리석음이 스며들 때면 언제나, 이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법규들은 즉시 우리가 말한 악습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¹²⁾ 이런 점에서 칼뱅의 예배 개혁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시 음미할 필요가 있다.

2. 잘못된 예배 의식들

유대/기독교의 전통에서 동일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배의 조건을 그의 백성들은 언제나 만족시키지 못한 편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민족의 종교와 접하면서 하나님 예배의 참된 모습을 변질시켰고, 심지어 하나님 자신의 여러 모양의 현현을 신성화시킴으로 그 본질을 왜곡시켰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개혁자들을 보내시어 본래의 모습으로 돌이키게 하곤 했다. 16세기는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유대 사회와 같은 맥락에서 고찰되는 것은 타당하다. 칼뱅은 유대 사회에 있었던 하나님 예배의 변질과 동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 있는 우상숭배를 말하면서 종교개혁의 목표가 진정한 예배의 회복에 있음을 암시한다.

칼뱅은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법에 의해서 경배될 때마다, 그의 나라는 약탈당하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영광과 예배의 유일한 입법자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¹³⁾라고 말한다. 로마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의 오류는 인간이 자신들이 만든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거나 그 둘을 혼합시킨데 있었다. “실로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우상숭배로 부패했을 때, 모든 악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이상한(étrange) 예배들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의식들에 있어서 과오를 저질렀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헛된 허식들을 기뻐하지 않았고 다만 그의 예배에 대한 이런 식의 부패(profanation)를 처벌하시려 한 것이다. 비록 예배에 언뜻 불경건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에서 이탈한 이상, 그것은 혹독하게 비난받는다. 이처럼 사람의 명령과 교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칼뱅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우상숭배¹⁴⁾보다 16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우상숭배가 더 가증하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장되고 씩씩 있는 오늘날의 미신은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지만, 당시의 우상숭배는 너무도 우둔한 무지로 참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공개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다.”¹⁵⁾ 칼뱅은 구약의 대표적인 우상숭배의 예로, 놋뱀, 아론의 금송아지, 여로보함의 송아지를 꼽는다. 칼뱅은 “놋뱀이 한때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세워졌으나(민 21:8 이하) 그 기능을 상실한 후에도 후손들에게 남겨져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한 기념물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놋뱀의 미신적 전환은 “선조들을 모방한다는 핑계 하에 후손이 놋뱀에 신적인 경배를 바치기 시작했을 때” 이뤄졌다고 지적한다. 역사가는 기록하기를 놋뱀이 어떤 미신과도 무관하지만 “다만 백성의 일반적인 어리석음과 열광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한다(왕하 18:4).

칼뱅은 로마 교회의 부패된 의식들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라고 부르는 것 가운데 일부가 온전히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며” 만들어진 것들이다. 둘째는 “비록 처음 시발은 나쁘지 않았지만, 그것을 악용한 자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비정상적이 되거나 뒤죽박죽” 된 것들이다. 셋째는 “그리스도인이 조심하면 범법하지 않을 수 있는 나쁜 의도로 명명된 것들”이다.¹⁶⁾ 칼뱅은 이중 어떤 의식들 속에는 우상숭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극도의 모독과 가증함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몇가지 실례를 든다. 그는 몇 가지 아디아포라에 관계하는 양심의 자유 문제를¹⁷⁾ 고위 성직자가 기만술로 신도의 양심을 묶어 놓았다고 단언한 뒤, 이 우상숭배 의식들로 성상 숭배 및 숭상(칼뱅은 지금 이런 성상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 꿇는 것, 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것까지도 염두에 둔다), 종부 성사 또는 聖油, 면죄부와 사죄¹⁸⁾, 푸닥거리 식의 마술적 聖水, 등이다. 심지어 혼례와 영세도 부패되었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부활절의 고해성사 등이 이미 진흙탕과 쓰레기가 되었다.¹⁹⁾ 그러나 칼뱅을 포함한 종교개혁자들이 보기에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우상숭배는 역시 미사였다. 미사의 희생 제사적 성격, 빵에 대한 경배, 그리스도의 잘못된 임재, 제단과 마술적 행위(귀신의 상) 등은 명백한 미신이다.²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스스로를 더럽힐 수 있는 의식들과 죄짓지 않고서도 준수할 수 있는 의식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 전적으로 마귀가 도입한 것들이거나, 아니면 너무도 심히 부패해서 명백한 우상 숭배로가

지 오게 된 것들"이라면, 후자는 "가벼운 오류에 기인하거나, 아니면 기원은 선하지만 후에 다소 손상된 어떤 의식들"이다. 이런 종류의 예로 "옛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성만찬을 시행할 때, 제단에 놓았던 양초와 초"가 있다. 이런 유대교적 의식의 도입은 비록 분별력없는 일이었지만, 우상숭배는 아니다. 이런 우매함이 양육해서는 안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고쳐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상처 주지 않은 채 그것을 묵인할 수 있다". 나아가 칼뱅은 그런 의식을 삼가는 자유를 행사할 것을 덧붙인다.²¹⁾

3. 니고데모파의 경우

프랑스에는 로마 교회의 예배가 우상숭배임을 알면서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에 참여했던 프랑스 복음주의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소위 니고데모파(Nicodémistes)로 불리었으며 모든 사회 계층, 곧 설교자, 사제, 변호사, 판관, 의사, 철학자, 문학자, 상인과 평민 계층에 속해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마지못해 기성 교회의 의식들에 참석했다. 칼뱅은 두 서신과 신도의 처신 등의 팸플릿을 통해 그들이 우상숭배에 동참한다고 비난하면서 복음 진리에 따라 살 것을 요구했으나, 그들은 칼뱅이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 가혹하게 공격했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제네바 개혁자는 니고데모파에게 주는 변명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문제를 진단했다. 칼뱅이 볼 때, 문제는 자신들의 행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변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다. 그런데 이런 정당화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변명이다. 칼뱅은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본의 아니게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그에게 맞서 현자인 체하는 자들"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Nicodémisme이란, 힘든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을 외면하고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의 實例들을 잘못되게,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여 변명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실의 필연을 핑계로 내세우는 자들의 태도이다. 칼뱅은 이들을 다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적한다.²²⁾ 칼뱅의 글을 그대로 인용한다.

"첫번째 부류는 명성을 얻기 위해 복음을 설교한다고 떠벌리고, 백성에게 그 맛을 조금 보여주어 달콤한 말로 녹이는 사람들이다...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복음을 악용하는 것인 바, 어쨌든 간에 복음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고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투쟁이 질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 건

전하고 순수한 교리의 몇 가지 점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청중들을 유혹한 뒤, 청중들을 그 상태로 유지하긴 하나, 이후 결코 이들이 올바른 진리를 깨닫는 데로 이끌어 가진 않는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보다 행보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교의] 지팡이를 잡을 수 없는 자는 수도원장 직이나 주임사제 직을 갈망한다. 부득이해서 많은 기부금과 훌륭한 식사로 아주 만족해하는 수도사들도 있다. 항상 입에 '교회'라는 말을 담고 있는 것도 그들이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교회의 기술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자기들뿐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물론 한편으로 나는, 어떤 이들이 자기들의 육신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구원을 추구하면서, 아주 열심으로 그곳에 간다고 매우 확신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우상숭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처럼 분노하고, 교회라는 구실로 그것을 얼버무리려 하는 자들은 자신들을 존중히 여기는 중이고, 내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그들의 육신의 편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자신들의] 집을 세우는 것이 확실하다. 이웃의 교회에 대해선, 그들은 성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즉 선으로 뿐만 아니라 악으로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사실 그들은, 불쌍한 백성을 속이고 이들로 우상숭배하도록 하면서,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는 것 외에 달리 무엇을 하는가?"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를 높이기 위해, 모든 우상숭배를 없앴으로써 죽음에 뛰어들기는커녕,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요리사로 삼아 식사 준비나 잘 하려고 하는 설교자들이다."

두 번째 유파는 "고상한 성직자들(prothonotaires)로서, 복음을 가지곤 있으나, 이로 인해 자기들 멋대로 사는데 방해되지 않는 한, 복음에 대해 부인네들(Dames)과 즐겁게 여흥으로 한담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어떤 성직자는 십자가의 대가로 연회, 놀이, 춤, 화려한 의상과 더불어 즐거운 생활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비웃으며, 어떤 아침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이 즐겨 하는 모든 광대 짓에 대해 비웃음과 조롱으로써 말하며, 어떤 부인은, 자신이 싫건 좋건 간에 최소한 일년에 한 번씩은 그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하찮은 모든 비밀을 그에게 내어 보여야 했기에, 이전에 벼락처럼 두려워했던 어떤 요한(Johan) 나으리를 비웃는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을 비웃는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중간하게 기독교를 철학

으로 바꾸고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사태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만 아무것도 없는 채 하지 않으면서, 어떤 좋은 개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보고 있다.” 그들은 이것이 위험한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일에 전념할 마음이 없다. 더욱이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관해서 그들 머리 속에 플라톤의 사상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서 교황 제도에 게 있는 대부분의 어리석은 미신들을 사람들이 그것 없이는 지낼 수 없는 것으로 변명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다. 이들 무리들은 거의가 배운 사람들이다. 물론 모든 배운 사람들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네 번째 부류는 상인들과 평민들로서, “이들은 자신들의 살림에 잘 정착해 있어 누가 자신들을 불안케 하려고 하면 불쾌해 한다.” 그들은 너무나 자신들에게 골몰해 있어,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즉시 그에 대해 분개해 하며, 또한 복음이 그들에게 듣기 좋은 노래를 들려주지 않을 때, 이내 모든 것을 거부하려 한다. 그들은 쉽게 분개에서 거부에 도달한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여 한가지 점에 고집을 부려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불평을 하며, 내일은 다른 점에서 그렇게 하여 모든 교리를 미워하고 멸시하면서 더 이상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까지 할 것이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약간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그의 말씀에 어느 정도 경의를 보이니,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에 봉사하는 것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고, 또 세상과 자신의 삶을 잇는 것임을 알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충분히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²³⁾

4. 참된 예배의 회복을 위해

그렇다면 교회법이 전혀 필요 없는가? 칼뱅은 예배의 형식을 거부하는 일부 재세례파와 신령파에 대해 거부하면서 교회의 규정의 필요성을 말한다.²⁴⁾ 그러나 규정이 양심을 속박한다거나, 규정을 지키는 것이 경건이라고 여겨서도 안된다. 오히려 참된 경건만이 “못된 헌법들”과 “교회의 거룩한 규례들 사이의 유일한 차이를 식별한다.” 이 “교회의 거룩한 규례들”은 “신자들의 모임에서 어떤 예절(honêteté)을 간직하든지, 아니면 그들 사이에서 평화와 일치를 유지하는지, 이 두 가지 목적 중 하나를 지향한다.” “예절의 규범을 위해 법이 세워진다는 사실이 일단 인정되고 나면, 하나님 예배를 인간의 고안물로 구성하는 자들이 허우적대는 미신은 제거된다.” “게다가 이 법은 인

간의 공통된 사용만을 지향한다는 것이 인정되면, 전통이 구원에 필수적이라고 믿게 하여 양심을 괴롭히는 의무와 필연의 그릇된 견해는 뒤집힌다.”²⁵⁾ 다시 말해 첫 번째는 의식에 관계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권징과 화평에 관계되는 것이다.

먼저 예절의 목적은 첫째로 “성례에 존경과 존엄을 주기 위해 의식들을 제정할 때 백성은 이런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도록 마음이 감동되는 데에 있으며”, 둘째로 그 의식에 “근엄함과 검소함이 나타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찮은 불거리만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예절이라고 부르지 않는다.”²⁶⁾ 이 예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를 경외하기 위해 백성이 진정 그리스도교적 헌신에 훈련될 수 있도록 잘 조절되는 것”을 말하며, 예배 행위가 점잖아서 신도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 어떤 겸양과 경외와 존경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지를 훈계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의식이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경건의 연습이 될 수 없다. 다음으로 평화의 일치는 설교, 공중 기도, 성례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찬송이나 시편 송을 부르는 일들과 관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절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은 아님을 인정한다. 그것은 동시에 인간에게서 온다. 예를 들어 기도할 때 무릎꿇는 것은 인간 전통에서 오면서 동시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라 함은 사도가 천거하는 예절의 일부이기 때문이며(고전 14:40), 그것이 사람에게서라 함은 사도가 다만 일반적으로 언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외적 권징과 의식에 관해서 세밀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이런 일은 시대와 환경의 형편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다만 예절과 화평이라는 두 기준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것이 우리 구원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로 사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 적합한 대로 변경하고 새로이 만들고 폐지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사랑만이 무엇이 해가 되고 무엇이 덕을 세우는지를 잘 보여 줄 것이다.”

여자가 머리에 두건 쓰거나 교회에서 잠잠하기, 무릎꿇고 기도하기, 시체 매장 등의 문제나, 예배의 일시와 장소, 시편 송 부르기 등의 문제 등은 그 자체로서 중요하지 않다. 이것들은 형편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점을 알게 될 때 우리 각자는 예절이나 사랑의 요구에 따라 필연으로 각자의 자유에

제한을 두게 되고, 나아가 교회의 규정들을 지키면서도 미신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까다로운 의식의 준수를 요구하지 않으며, 꼭 많은 의식이 좋은 예배라고 생각지 않으며, 외적 규율의 차이로 인한 교회간의 불화를 막을 수 있다.

5. 칼뱅의 예배 의식

칼뱅의 예배 의식은 스트라스부르 시절(1538-1541)에 정립되었다.²⁷⁾ 칼뱅은 이 도시에서 프랑스인들을 위해 목회를 했고 따라서 프랑스 말로 된 예배 모범(liturgie)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는 이미 파렐에 의해 1533년에 만들어진 최초의 불어권 개혁파 예배 모범을 채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스트라스부르의 예전을 모델로 삼았다. 그는 아마도 1538년 9월 8일 주일부터 설교를 시작했고 한 달에 한번씩 성찬을 시행했다.²⁸⁾ 게다가 불어로 된 시편 찬송도 있었다.²⁹⁾ 칼뱅은 이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한지 몇 달이 안되어서 시편과 성가 모음집(Aulcuns pseumes et cantiques mys en chant, 1539)을 발간했다. 약 60여 쪽짜리인 이 작은 책자는 19개의 시편 번역(그중 18개가 곡이 붙어 있다)과 3개의 찬송을 담고 있다. 아마도 칼뱅은 Clément Marot의 12개 시편 번역 초안을 입수했을 것이고 그 자신이 다섯 내지 여섯개의 시편을 번역했다. 멜로디는 스트라스부르의 작곡가들인 Matthias Greiter와 Wolfgang Dachstein이 붙여 주었을 것이다. 어쨌든 명백한 것은 칼뱅이 스트라스부르에서 시편과 성가의 예전적 노래를 발견했고 그것을 불어권 개혁파 예배에 도입했다는 사실이다.

칼뱅은 스트라스부르에서 돌아오자마자 교회법(1541)에 이어 교회의 기도와 찬송 양식(1542/1545)³⁰⁾을 펴냈다. 그는 이 책의 독자 서문에서 예배의 표지로 세 가지 것, 즉 설교와 기도, 그리고 성례를 말한다. “요컨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회중에서 준수하라고 명한 세가지 것이 있다. 즉, 그의 말씀의 설교, 장엄한 공중 기도, 그리고 그의 성례들의 시행이다.” 그러나 칼뱅이 기도를 말씀의 기도와 찬송의 기도로 나누기 때문에 찬송 역시 예배의 표지가운데 하나이다. 이 책은 세례식과 성찬식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결혼식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칼뱅은 이 책에서 설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³¹⁾ 제목이 보여주는 대로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 기도서(La Forme des prieres)이다. 그는 주일 아침 공동 예배의 순서에 따른 기도문을 작성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짧은 기원³²⁾이 있고 바로 죄

를 고백하는 기도*가 뒤따른다. 그리고 시편 송을 부른 뒤 목회자는 각자의 재량에 따라 말씀이 잘 선포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 칼뱅은 설교 후에 드릴 기도문*을 상당히 길게 작성한다. 성찬식이 있는 날을 위해 식전 기도문*과 식후 기도문*이 이어지며 민수기 6장의 축복기도*도 기재했다. 그리고 혹 흑사병이나 전쟁 및 기타 재앙에 대한 특별 기도문*도 작성했다. 기도는 “백성에게 알려진 보통의 언어로 행해져야” 한다는 그의 말대로 이 모든 기도문이 불어로 되어 있다. 외국어로 행해진 기도에 백성이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중 기도는 “모두의 이름과 인격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각 사람이 그것에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칼뱅은 라틴어 예배를 비난한다.

루터가 미사(성찬)를 여전히 예배의 표지로 삼았다면, 츠빙글리는 성찬을 주일 예배에서 분리시켰다. 제네바에서 칼뱅은 원치 않게도 이 성례전적 예배를 위축시켰다.³³⁾ 그는 워낙 미신처럼 된 성례 의식을 매우 단순화하여 세례 의식서와 성찬 의식서를 만들었다. 칼뱅은 성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겼다. “성례가 담고 있는 신비들을 설명할 없이 오직 보게만 하는 식”은 “사악한 관습”이다. “만일 성례가 성 어거스틴이 명명한 대로 보이는 말씀이라면, 외적인 구경거리만 있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교리가 결합하여 그것에 대해 알게 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례를 거행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 기록된 것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 그 의미를 설명하지도 않은 채 징표로 백성을 즐겁게 하는 것은 순전히 광대짓이다. 흔히 사람들은 세례의 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성찬의 빵과 포도주의 변화지레(consecration)를 마치 일종의 마술로 여긴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지레란, 성 어거스틴이 말하듯이, 신앙의 말씀이 선포되고 영접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례를 잘 시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교리를 갖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의미가 우리에게 선포되게 해야 한다.”

칼뱅에게 있어 찬송은 실로 곡조있는 기도이다. 그는 찬송이 교회의 첫 기원부터 있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찬송이 담고 있는 모종의 힘을 인정한다. “진실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찬송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불태우는 큰 힘과 생기가 있어서 보다 맹렬하고 열렬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칭송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일반 음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이 세상에는 [음악보다도] 더 사람들의 미풍양속을 이리 저리 바꿔 놓거나 틀어 놓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실제로 우리는 음악이 은밀하고 거의 믿을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사람의] 마음들을 이런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여흥을 위한 음악과,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노래하는 시편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런 "찬송의 사용은 우리에게 하나의 자극제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organe)이자, 그의 능력과 선함과 지혜와 정의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까지 높이는 도구와도 같다". 우리는 헛된 것으로 즐거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 하라고 말한다. 칼뱅은 "인간을 재창조하고 그에게 기쁨을 주기에 적절한 것들 가운데 음악이야말로 첫째이거나, 으뜸가는 것들 가운데 하나"임을 말하면서, 이것을 남용하지 말고 고상하게 사용할 것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음악이 방종으로 우리의 고삐를 느슨하게 하거나 방탕한 쾌락으로 나약해질 기회가 되지 않으며, 또한 음악이 음행이나 어떤 음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고대 교회 교사들은 그들 시대의 백성이 추잡하고 음란한 노래에 빠져있는 것에 대해 자주 한탄했으며 "이 노래들을 세상을 타락시키는 치명적이고 사탄적인 독이라고" 여겼다. 칼뱅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나쁜 가사 말이 멜로디와 함께 하면서, "훨씬 강하게 마음을 관통하고 내부로 들어 가서 마치 포도주가 목구멍을 통해 혈관(vaisseau)으로 투입되듯이, 마찬가지로 독과 부패가 멜로디를 통해서 마음의 밑바닥까지 떨어진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신도들은 고상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노래를 가져야 한다. 이점에서 다윗의 시편보다 더 적합하고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을 노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 자신이 자신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우리 안에서 노래하시는 것처럼, 우리 입에 말씀을 두신다고 확신한다." 이와 같이 영적 노래란 오직 마음으로만 불러질 수 있고 또 마음은 이해력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칼뱅이 감정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새와는 달리 자신이 말하는 것을 알면서 노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해력에 이어 마음과 감정이 뒤따라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노래하는 것을 그치지 않기 위해 우리 기억에 새겨진 찬송가를 갖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그는 프랑스 개혁파 찬송가를 만들게 된 것이다.³⁴⁾

결론: 개혁의 지속적 주제

칼뱅의 예배 개혁은 단순히 로마 교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의 예배 이해는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신정 국가나, 중세와 16세기의 기독교 국가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와 같은 박해의 시대에도 이상승배는 끊임없이 하나님 예배를 위협했다. 기독교가 그 지배력을 상실하고, 다른 종교들과 더불어 살수밖에 없는 소위 다원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도,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나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신 그의 처소가 있는 예루살렘의 파멸을 경고하셨을진대, 오늘날 교회역시 정치적으로 아하스의 죄악을 도입하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종교적 우상으로 바꾸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면 경비하여 회개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이후,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입었다. 콘스탄티노플은 이스탄불이 되었고 로마는 16세기에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옛 예루살렘의 상태와 동일하게 평가되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렀던 평양은 어떠한가? 복음이 들어 온 역순으로 성지 순례를 떠나 보라. 하나님 예배가 이미 각양의 이상승배들로 대체되어 있음을 볼 것이다. 그것이 외부에서 들어 온 이상이건(예루살렘과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평양의 김일성), 내부의 기독교적 미신이건(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권력과 탐욕과 신통력을 위한 온갖 예배 형태).

우리에게 좋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에게 종교개혁의 정신적 사상적 좋은 흐름이 있다. 게다가 칼뱅을 우리 장로 교회의 조상으로서 일컫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와 동양의 종교들을 한 복판에서 옛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악을 또다시 범하고 중세의 긴 기간 로마가 저질렀던 동일한 죄악을 또다시 범한다면 우리의 황폐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겠는가? 모든 멸망과 황폐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그것은 개혁의 지속적 주제인 하나님 예배의 변질에 있다. 하나님이 유대교와 맺은 언약이 그 끝을 보게 되고 중세 로마 카톨릭과의 언약도 개신교와의 새 언약으로 그 빛을 잃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의 언약을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보장은 무엇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참된 선지자들의 호령과 사도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교회사에서 외쳐진 개혁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개신교 역시 하나의 종교적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 주석

1. 칼뱅은 기독교강요 IV권 X장에서 예배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다.
2. IRC (Benoit), IV, x, 1. 칼뱅은 1559/1560년 최종판에서 초판 “교회 권세에 대해서”를 대폭 수정 증보하면서 자신의 글의 목적이 교회 정체에 있지 않고 예배 문제에 있음을 밝힌다.
3. “전부의 목적은 목자로 평가되기를 바라는 자들이 가련한 영혼들 이들에게 그들은 사악한 도살자이다에 대해 찬탈한 과도하고 이반적인 제국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IV, x, 1). “내 의도는 하나님 앞에서 영혼들을 속박하고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돌돌 말아버리기 위해, 마치 그 법들이 담고 있는 모든 것이 필히 준수되어야 하는 것처럼,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그런 법들과 싸우는 것이다”(IV, x, 2).
4. IRC (Pannier), IV, p. 182.
5. IV, x, 8.
6. “이 두 가지 이유가 우리의 기억에 새겨진다면 어떤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여기서 인간의 법들이란 흔히 말로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데 속한다고 말하는 법들과, 마치 필수적이거나도 하듯이, 양심들로 하여금 지키라고 강요하는 법들이다.”
7. IV, x, 11.
8. IV, x, 12.
9. IV, x, 13.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 권세는 교회 재산 문제에 있어서 세속 권력과 결탁한다. 이점에서 그들은 더 이상 “교회의 목자들”이 아니다. 주교들이 재판과 도시 행정에 개입하고 생활에서 군주들을 흉내내며, 도시와 성 뿐만 아니라 귀족들의 영토, 나아가 왕국과 제국에게까지 발을 뻗는다. 칼뱅은 이 권력 행사와 재산 증식이 기성 교회의 영적 권세의 상태라고 말한다. 첫째, 세상 군주에 대한 견제로서 교회의 대안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칼뱅은 교회의 직무가 세상의 높음 및 영광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잘라 말한다. 둘째, 재산의 증식과 관리의 필연성에 대해서 칼뱅은 사도들의 예를 들어(행 6:2) “선한 군주와 선한 주교의 직무를 동시에 행하는 것이 한 사람에게 속하지 않음을” 말한다. 칼뱅은 그들이 영적 통치를 버리거나 아니면 세속적인 힘을 포기할 경우, 올바른 권세의 영역이 세워질 것으로 보았다.
10. IV, x, 14.
11. IV, x, 15.
12. IV, x, 16.
13. IV, x, 23.
14.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무패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예배의 대상이 왜곡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예배의儀式이 뒤물려진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 예배가 장소와 형식에 국한되어 삶에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다.
15. 두 서신, 칼작성 II.
16. 신도의 처신, 칼작성 V, 17.
17. 종교 일에 고기 먹는 일과, 결혼하는 일. 칼뱅은 정당한 식욕과 성욕의 발산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바, 이 본능의 금욕이 인간의 참된 자유가 아니라고 본다.
18. 칼뱅은 미가 선지자 시대의 풍습을 자신의 시대에 적용한다: “그들은 누가 그들의 입에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경우, 이를 악물고 그를 향해 전쟁을 신성하게 하며 그것을 준비한다”.
19. 신도의 처신, 칼작성 V, 22 25.
20. 두 서신, 신도의 처신.
21. 신도의 처신(부록 다른 서신).
22. 니고데모파에게 주는 변명, 칼작성 V.
23. 니고데모파에게 주는 변명에서 발췌 및 요약.
24. 칼뱅이 1545년에 첨가한 내용에 따르면, 그는 독재적 법에 대해 변명하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선하고 거룩한 교회법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비난한다(IV, x, 30).
25. IV, x, 28.
26. IV, x, 29.
27. Cf. René Bornert, La Réforme Protestante du Culte à Strasbourg au XVI^e siècle (1523-1598), E. J. Brill, 1981, pp. 192-201.
28. Herminjard, V, 145. 제네바가 일년에 4번 시행하는 것과 비교하라.
29. Jean Zwick가 Henri Bullinger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쓰여졌다. “스트라스부르에서 한 교회가 프랑스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4번 칼뱅의 설교를 들었고, 성찬을 거행했으며 그들의 언어로 시편을 노래했습니다”(CO, Xb, col. 288).
30. “교회의 기도와 찬송 양식 및 고대 교회의 관습에 따른 성례 시행 방식과 결혼 축성 방식”(La forme des prieres et chantz ecclesiastiques, avec la maniere d'administrer les sacremens et consacrer le mariage selon la coustume de l'Eglise ancienne, CO, VI, cols. 161-224).
31. “나는 여기서는 설교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칼뱅은 설교학에 대해서 아무런 글을 남기지 않았다.
32. *표가 붉은 기도들은 기도문이 작성되어 있다.
33. 이점에서 칼뱅은 스트라스부르에 가기 전(1537년 교회 설립시안)과 다시 돌아온 후가 동일하다. “성만찬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다 자주 사용되도록 제정하신 것이며, 또한 마귀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아 그것 대신 미사를 세우기까지는 고대 교회가 그와 같이 자주 지켜왔기 때문에, 성찬을 이토록 자주 시행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고쳐야 할 결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우리는 일년에 4번, 즉 크리스마스, 부활절, 오순절, 가을철 9월 첫 주일에 시행되도록 정하고 통지했다”(1541년 교회법). 그는 스트라스부르에서 목회할 때 매달 성찬을 시행했다.
34. 그가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편은 책 순서대로 시 46편, 25편, 91편, 138편, 36편, 120편, 142편, 43편, 113편이며, 그 외에 시므온의 송가(눅 2장), 십계명(출 20장), 예수 그리스도께 문안 인사가 실려있다.